

에틸렌, Rita 영향 수급타이트 심각

미국, 10월 초 에틸렌 크래커 70% 가동중단 ... 에틸렌 가격폭등 파장

허리케인 Rita 이후 미국의 에틸렌(Ethylene) 수급타이트가 심각한 상황이다.

Banc of America Securities에 따르면, Rita는 Katrina보다 경미한 피해를 남겼지만 석유화학 메이커들은 Katrina 쇼크가 채 가시기도 전에 4등급 허리케인으로 생성된 Rita 상륙에 대비해 미리 가동을 중단했으며 두 허리케인이 지난 이후에도 상당수의 에틸렌 크래커가 10월 초까지 가동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Rita 상륙 이전에도 북미 에틸렌 생산능력의 13%가 가동중단된 상태였으며 Rita 이후에는 텍사스-루이지애나 경계 인근 에틸렌 크래커의 60-70%가 10월 초까지 가동중단됐으며 18% 가량의 크래커만이 가동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에틸렌 크래커 가동현황(2005)

(단위: 100만b)

회사명	소재지	생산능력	생산비중	Rita 이전	Rita 이후
BASF	Port Arthur(Tex)	2,028	2.6	가동중단	가동중단
ExxonMobil	Beaumont(Tex)	1,799	2.3	가동중단	가동중단
CPChem	Port Arthur(Tex)	1,750	2.3	가동중단	가동중단
Eastman	Longview(Tex)	1,687	2.2	가동률 75%	가동률 100%
Huntsman	Port Arthur(Tex)	1,400	1.8	가동중단	가동중단
	Port Neches(Tex)	400	0.5	가동중단	가동중단
Westlake	Lake Charles(LA)	1,202	1.6	가동중단	가동중단
	Lake Charles(LA)	1,202	1.6	가동중단	가동중단
Sasol	Westlake(LA)	999	1.3	가동중단	가동중단
DuPont	Orange(Tex)	1,301	1.7	가동중단	가동중단

+ 10월 초 기준

생산차질에 의한 에틸렌 수급타이트로 에틸렌 가격이 급등해 메이커들의 4/4분기 마진은 다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월 에틸렌 계약가격(CP)은 파운드당 45.5센트로 5센트 상승했고 10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56-59센트로 10센트 이상 급등했으며 Spot 가격 역시 9월 FD US Gulf 파운드당 59센트에서 10월 파운드당 69-70센트로 폭등했다.

Merrill Lynch에 따르면, 에탄(Ethane) 베이스 에틸렌 제조 코스트가 파운드당 44센트에 육박하고 있어 메이커들의 에틸렌 가격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5/10/31>